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의 비교연구*

하승태** · 김창숙*** · 최수진**** · 유성훈*****

초 록

본 연구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시청자들의 폭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으로서 가해자/피해자 유형, 물리적 폭력의 유형, 언어적 폭력의 유형, 폭력의 회화 등을 PAT 수준에서 분석하였으며, 또한 폭력의 현실성, 폭력의 의도성, 그리고 폭력의 내러티브를 프로그램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케이블이 지상파에 비해 높은 폭력성을 보였으며, 맥락변인별 분석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시청등급별 분석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 시청등급에 따른 폭력의 양이나 맥락에 있어서 일정한 증감의 패턴을 보여주는 대신 비교적 고른 폭력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방송프로그램 등급, 텔레비전 폭력, 폭력의 맥락

*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2단계 Brain Korea 21 사업팀(매스미디어 폭력성과 선정성 연구)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BK21 박사 연구원, sthaha@naver.com,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irun2@hanmail.net

**** 경희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love61sj@hanmail.net

***** 경희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mbcan79@naver.com

I. 서 론

방송위원회는 기존에 일부 장르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를 2007년부터 보도나 다큐, 생활정보 등 일부 장르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의무화하였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이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제2조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 등급은 5단계¹⁾로 분류되며,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미디어의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디어의 폭력성이 시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하여 왔다. 특히 텔레비전의 폭력이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의 강화나 폭력에 대한 둔감화를 초래하고, 일탈행위나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인형, 2006; 김현수·김현실, 2000; 우형진·김성벽, 2006; Bushman & Anderson, 2001; Huesmann & Moise, 1996; Krcmar & Cooke, 2001).

그러나 텔레비전 폭력물 시청이 실제로 시청자들의 공격적 성향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부재하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텔레비전 폭력물 시청이 오히려 대리만족을 통해 시청자들의 공격적 성향을 낮춘다는 ‘정화(catharsis) 이론’과 텔레비전의 폭력적 행위를 학습하고 현실에서 재생산한다는 ‘모방 이론’, 텔레비전이 폭력의 금기수준을 낮추게 한다는 ‘반억제 이론’ 등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폭력물의 긍정적 효과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Severin & Tankard, 2001/2004: 389), 아직까지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논쟁에 대해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는 4년간의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텔레비전 폭력성이 어린이 수용자들의 공격적 성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박남기, 2007).

1) ‘모든연령 시청가’, ‘7세이상 시청가’, ‘12세이상 시청가’, ‘15세이상 시청가’, ‘19세이상 시청가’로 구분됨

문제는 미디어 폭력물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학술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디어에 나타나는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6년 방송위원회의 심의제재 현황을 보면, 지상파 방송은 2005년 55건에서 2006년 162건으로,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은 189건에서 214건으로 증가하였다(방송위원회, 2007a). 또한, 2006년 시청자 불만사항 중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건수가 각각 53%,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불만이 선정성, 폭력성 등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것이었다(방송위원회, 2007b).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매체물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 프로그램의 21.4%와 케이블 프로그램의 56.6%가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의 인격적 성장과정에 있어서 매스미디어는 중요한 사회화의 도구로서 자리잡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텔레비전 시청이 19세 때의 공격적 행위를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이었다는 레프코위츠 외의 연구(Lefkowitz et. al., 1972)는 미디어 폭력물이 야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잠재적인 영향력의 심각성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애초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유해 미디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불분명한 등급제 분류기준과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실시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10시 대의 19세 등급 영상물을 9시 50분 등으로 배정해 15세 등급을 달고 방영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디지털타임스, 2007년 12월 15일자). 미디어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들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시청가로 분류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한 폭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묘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맥락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청등급에 따른 폭력성의 양태와 맥락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그것이다. 이런 분석은 나아가 시청등급별로 폭력성에 대한 표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폭력성의 수위조절이 주요 방송 매체 간에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문헌연구

1. 폭력의 정의

미디어 폭력은 오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는 학자들마다 폭력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의 정의는 ‘과연 무엇까지를 폭력으로 간주할 것인가’하는 것으로서 초기의 학자들은 폭력의 물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한 예로서 클락과 블랙켄버그(Clark & Blakenburg, 1972)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재산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을 수반한 물리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TV 폭력연구를 이끌었던 거브너 외(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0)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힘을 가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행위 등을 폭력’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학자들은 폭력을 단순한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대표적으로 윌리엄스 외(Williams, Xabrack & Joy, 1982)는 신체적 행위 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중요한 폭력의 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머스토넨과 풀키넨(Mustonen & Pulkkinen, 1997)도 ‘드러나 있는 힘과 협박 뿐 아니라 암묵적으로 보여지는 협박, 비언어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분노 등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들’라고 정의함으로써 폭력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한편, 포터와 동료들(Potter, et. al., 1995)은 신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정신적인 태도를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물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박진희(2001), 최이정(2001), 방송위원회(1994) 등은 TV 폭력을 물리적 측면과 함께 언어적, 심리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있으며, 이문웅(1991)과 지명희(1998)의 연구에서는 폭력의 대상을 사람 뿐만 아니라 재산, 물건에 까지 확대시켰다.

결국, 초기의 학자들은 물리적인 폭력만을 폭력으로 간주했던 반면, 최근에는 언어

적 폭력, 심리적 폭력, 심지어는 코믹폭력(안계춘·박한철, 1998)까지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 폭력의 잠재적 효과 역시 심각한 폭력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의 대상도 세분화하여 사람, 사물, 동물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폭력연구의 포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심리적 요소를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명백하게 위협을 하거나 물리적 힘의 실제적 사용에 대한 전반적 묘사, 혹은 언어를 이용해 모욕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협박하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묘사’를 폭력으로 정의하였다.

2. 청소년과 미디어 폭력의 중요성

오늘날 청소년들은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을 통한 대인커뮤니케이션보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중재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와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정도로 대중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홍은, 2002). 특히, 텔레비전은 그 광범위한 편재성과 뛰어난 접근용이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최초의 창(early window)'이 되고 있다(정희경, 2002). 그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사회화과정의 많은 부분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의존하고 있다. 미디어 폭력물이 많은 사회적 우려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온 것은 폭력물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의 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Gerbner & Gross, 1976; Gerbner et al., 1980).

보다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폭력물이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우선 청소년들이 TV폭력에 대해 느끼는 강한 매력성에 있다 하겠다. 중·고등학교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한 설문연구에 따르면 TV의 폭력장면을 보고난 후 “따라해 보고 싶다”, “자신도 모르게 흥분된다” 그리고 “재미있고 통쾌하다” 등의 매우 적극적인 반응이 47.3%로 나타났다(김경근, 2000). 이는 TV폭력이 특히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들인 모방의도 증대, 공격성 강화, 정서적 감정표출 등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반응들로서 폭력물에 대한 노출결과의 정도와 경향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층은 과도기적 연령대로 자아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며 충동적이고 저항적이 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이 폭력물을 시청하는 주요 동기로는 현실도피를 들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경우 텔레비전에서 그려지는 허구적 폭력으로부터 피동적인 즐거움을 얻고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현실세계의 문제로 부터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Pearl, Bouthilet, & Lazar, 1982). 즉, 텔레비전에서 묘사되는 폭력적인 장면들은 청소년들의 공격적 욕구가 발산될 수 있는 적극적인 통로로서 이용되기 때문에 TV폭력물은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나은영, 1995).

특히, 청소년들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허구를 현실과 혼동하기 쉬우며(김남희, 1994; 정윤이, 2004),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폭력적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이에 대한 모방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Hoffner & Cantor, 1985; Zillmann & Bryant, 1991). 구체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매력적일 수록 수용자는 해당 인물과 자신의 동일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격적 행위에 대한 모방의 경향은 더욱 증대되는 것이다(김기태, 1993). 실제 앞서 언급한 김경근(2000)의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폭력장면을 흉내 낸 경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7.8%가 폭력장면 시청 후 폭력행위를 흉내 낸 적이 있거나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이론(epidemic theory)은 TV폭력이 사회로 전염되는 현상, 즉 모방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Phillips, 1974), 1998년의 미국 아칸소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공포영화 ‘스크림’을 모방한 것이나(곽진희, 2001) 국내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을 그대로 모방한 범죄(2000.06.18. 연합뉴스) 등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나타난 폭력과 현실을 혼동하고 허구적 폭력을 모방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한편, 이러한 미디어 폭력물의 심각성에 비해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행태에 대한 지도는 실제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외설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청소년 시청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것이 우리 가정들에서

흔히 보여지는 부모들의 시청지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2004. 5. 30. 한겨레). 그러나 텔레비전의 폭력적 내용 및 자극적 영상이 육체적, 정신적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위적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가능성이들을 고려해 볼 때, 텔레비전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3. 텔레비전 폭력성에 대한 최근 국내 연구 경향

텔레비전 폭력성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Gerbner et al., 1979; NTVS, 1997a; 1997b, 1998; Potter & Ware, 1987; Smith, Nathanson, & Wilson, 2002; Wilson, Colvin, & Smith, 2002). 특히 텔레비전 폭력이 수용자의 가치관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다룬 거브너(Gerbner, 1972)의 문화계발(cultivation theory)연구나 비교적 최근 이루어진 전미 텔레비전 폭력성연구(NTVS, 1997a; 1997b; 1998) 등은 실제 노출되고 있는 미디어 폭력성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를 구축했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방송영상진흥원에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텔레비전 폭력성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YMCA,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나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정부 산하 기관들에서 텔레비전 폭력성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순한 물리적 폭력의 양적인 측면에 치중한다거나 사례별 연구와 같은 부분적인 연구 등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민영·이정교·김태용, 2007). 이러한 지적에 따라, 최근 지상파의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분석 연구가 시도된 바 있는데, 한균태 외(2006)는 텔레비전 폭력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물리적 폭력은 물론, 맥락적, 언어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폭력성을 분석한 바 있다. 민영 외(2007)도 국내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 나타난 물리적, 언어적 폭력의 양과 유형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내 미디어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폭력물들에 대한 내용분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보다 다양해져 가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한 학술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폭력물에 대한 노출의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상파와 더불어 최근 들어 가입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한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폭력성 연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다.

4. 폭력의 맥락연구의 필요성과 주요 맥락 요인

미디어의 폭력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빈도중심의 양적 측정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폭력성 초기연구를 대표하는 거브너의 문화지표연구에서 측정된 폭력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Gunter, 1985, 1994), 이는 물리적 폭력의 계량적 측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폭력의 단순한 빈도보다 그러한 폭력이 제시되는 맥락적 요소들이 시청자들의 폭력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미TV폭력 연구에서는 폭력이 제시되는 맥락에 따라 시청자들의 폭력성이 증가하거나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NTVS, 1997a). 또한, 하승태 외(2007)도 TV 드라마의 폭력성은 스토리의 형태나 등장인물간의 복잡한 관계라는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강남준·김지환(1998), 박진희(2001), 그리고 한균태 외(2007) 연구 등에서도 폭력이 중재되어지는 맥락의 고려 없이 폭력물의 심각성을 논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동일한 폭력행위일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혹은 어떤 동기로 행사되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폭력장면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폭력의 맥락들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을 주요 시청대상으로 하는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가해자/피해자 유형. 우선 폭력의 맥락적 요인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폭력을 정의함에 있어 초기 연구에서는 사람만을 폭력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나 폭력의 정의가 광범위해지면서 일부 학자들은 그 대상을 동물이나 물건으로까지 확대하게 된다(Potter, et. al., 1995; 이문웅, 1991; 지명희, 1998). 그러나 실제

적으로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예는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매력이 시청자들이 폭력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Bandura, 1986; Potter & Warren, 1996; NTVS, 1997),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경우 ‘슈퍼맨’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행하는 폭력을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모방성향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의 주체와 대상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 등인지에 따라 상이한 공격성 증가와 모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Perry & Perry, 1976; Zillmann et. al., 1991; Hoffner & Cantor, 1995).

물리적 폭력의 유형. 물리적 폭력은 신체 혹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한 복합적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물리적 폭력에서 도구의 사용여부가 시청자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폭력에서 폭력을 위한 도구의 등장은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Carlson, Marcus-Newhall & Miller, 1990). 그 중 특히 총기류는 공격적인 행동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ge & O’Neal, 1977). 이에 대해 베르코비치(Berkowitz, 1990)는 도구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인지적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폭력성의 전달이 보다 용이해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언어적 폭력의 유형. 초기의 미디어 폭력성 연구들은 언어적 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언어적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과는 다른 잠재적이며 심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Mustonen & Pulkkinen, 1997; Potter & Ware, 1998). 폭력으로서의 언어적 공격은 물리적 공격과 더불어 명백한 혹은 암시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심리적인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폭력성의 한 측면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폭력의 회화. 폭력을 회화하는 것은 주로 언어나 몸짓 등을 이용하여 폭력을 유머나 웃음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폭력의 회화는 폭력성을 과장시키거나 감소시켜 폭력의 부정적인 면을 간과하게 하거나 사소화하도록 만든다(하승태 외, 2007). 폭력의 회화 방법 중의 하나인 유머사용은 폭력의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강남준, 김지환, 1999; 한균태 외, 2007; Potter & Warren, 1996, 1998; William, Zabrack &

Joy, 1982), 이로 인해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들은 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Zillmann & Bryant, 1991).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에서의 유머와 결합한 폭력은 아동 수용자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둔감화와 사소화를 야기시켜 폭력적 결과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NTVS, 1997a, 1997b).

폭력의 현실성. 폭력의 현실성은 시청자들이 폭력을 얼마나 현실로 인식하느냐와 관련된다. 폭력의 현실성에 대한 연구들은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된 폭력이 시청자들의 공격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앳킨(Atkin, 1983)은 유사한 폭력일지라도 뉴스에 나타난 폭력적 장면이 광고에 나타난 그 것에 비해 시청자들의 공격성 증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에서 보여지는 폭력을 시청자들이 더욱 실제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연구결과로 동일한 전쟁영상을 피험자들에게 다큐멘터리로 소개했을 때가 영화로 소개했을 때보다 피험자들의 공격성을 더욱 증대시킨다는 연구결과 또한 보고되었다(Berkowitz & Alito, 1973). 폭력의 현실성은 폭력의 사실적인 묘사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윤진(1991)은 폭력의 사실적인 재현이 청소년들의 비행, 특히 모방범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폭력의 의도성. 폭력에 대한 의도는 폭력의 고의성 혹은 우발성과 관련되어 있다. 윌리엄스(Williams et al., 1982)는 폭력의 중요한 맥락으로서 폭력의 의도성을 연구한 바 있는데, 이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넘어 폭력이 일어나게 된 배경까지 분석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폭력연구를 한 단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즉, 우발적인 폭력보다는 미리 의도되고 계획되어진 폭력에 대해 수용자는 더욱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공포감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행사되어지는 폭력의 정당성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연적 폭력과 같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의 경우 그렇지 않은 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그것이다(Comstock & Paik, 1991; Potter & Warren, 1996).

폭력의 내러티브. 묘사되어진 폭력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주거나 혹은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용자의 모방의도에 보다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Bandura, 1986; Potter & Ware, 1987). 폭력의 내러티브가 교훈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년 수용자의 폭력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비교훈적인 폭력의 경우 보다 공격적인 태도와 폭력적 행동의 학습을 조장할 위험성을 높이게 되며 폭력에 대한 도덕적 추론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Bandura, 1965; Potter & Warren, 1996). 폭력의 내러티브분석은 파편화된 하나의 폭력적 장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 수준에서 폭력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볼 때, 폭력들이 프로그램 내러티브 내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문제

이상의 미디어 폭력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을 제기하는 바이다.

- (1) 주시청시간대의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의 양과 유형은 어떠한가?
- (2) 주시청시간대의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의 맥락은 폭력장면 수준에서 어떠한가?
- (3) 주시청시간대의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의 맥락은 프로그램 수준에서 어떠한가?
- (4) 주시청시간대의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의 맥락은 시청등급별로 어떠한가?

III. 연구 방법

1. 자료 표집

지상파 및 케이블TV에서 방영된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방송매체별로 주시청시간대²⁾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표집을 실시하였다. 우선, 지상파방송의 경우 지상파 3사의 주요 채널(KBS1, KBS2, MBC, SBS)들을 대상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의 주시청시간대에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총 12개월의 기간을 4분기로 나눈 후 각 분기별로 총 2주간의 방영분을 복합주간 표집방법(composite-week sampling)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즉, 각 요일별로 이틀씩을 할당하여 해당요일에 속하는 날짜를 임의 표집해 총 2주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분기별 2주씩 총 8주 동안 방영된 프로그램 중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 즉,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12세 및 15세 시청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표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약 438시간의 방송시간에 해당하는 총 606편의 프로그램들이 추출되었다. 표집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VOD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 코딩작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케이블방송의 경우 다시보기와 같은 VOD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2007년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2주간의 임의표본을 사용하여 역시 케이블 TV의 주 시청시간대에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였다. 케이블방송의 주 시청시간대는 지상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오후 12시부터 2시 그리고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나타났으며 2주 동안 해당 시간대에 방영된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들이 분석대상이었다.³⁾ 역시 대표성 있는 프로그램 표집을 위해 서울지역의 주요 케이블방송사인 HCN과 Qrix가 제공하는 서비스등급 중 최상위서비스 등급에서 공통적으

2) 각 매체의 주 시청시간대는 은혜정·박웅진(2005)의 「2004년도 TV프로그램 시청률 백서」에 보고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3) 지상파와 케이블방송간의 시청률 추이는 서로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는 케이블방송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그 반대의 경우 또한 시청률 추이분석의 주요결과로 나타났다(은혜정·박웅진, 2005).

로 방영되는 총 85개의 채널들을 대상으로 총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즉, 모든 채널들을 11개의 주요 장르⁴⁾로 분류한 뒤 각 장르에 속하는 채널의 수에 따라 2주간 총 56시간의 분석시간을 장르별로 비례할당 하였으며, 해당 장르에 속하는 채널들에 대해서는 임의표집을 통해 할당된 시간만큼의 프로그램을 표집하였다.⁵⁾ 표집결과 총 63편에 대한 41시간 50분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들이 표집되었다.

2. 주요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미디어 폭력은 크게 ①물리적 폭력, ②언어적 폭력, 그리고 이들이 복합적으로 묘사된 ③복합적 폭력으로 나누었는데, 물리적 폭력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나 위협 등 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며, 언어적 폭력은 분노표출과 같은 화풀이, 욕설과 조롱 등과 같은 모욕, 그리고 공격적 언어를 사용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위협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폭력관련 인물들의 유형은 ①사람, ②동물, ③의인화된 존재, 그리고 ④초자연적인 존재 등으로 분류되었으며, 폭력의 회화는 ①농담 등을 통한 폭력의 언어적 회화, ②행동을 통한 신체적 회화, ③컴퓨터 그래픽이나 자막을 통한 회화, 그리고 여러 유형이 섞여 있는 ④복합적 회화 등으로 분류 및 정의되었다.

한편, 폭력의 현실성은 ①실제 일어난 폭력 혹은 과거에 일어났던 폭력을 재현하는 경우(예, 격투기나 범죄재현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장면)와 ②허구이나 개연적으로 구성된 폭력(예, 대표적으로 드라마에서 묘사되어지는 폭력장면), ③그리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물이나 배경에 의해 발생하는 비현실적 폭력(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가상적 인물에 의한 폭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폭력의 의도성은 크게 ①묘사되어지는 폭력이 미리 계획되었거나 의도적인 경우와 ②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폭력행사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4) 모든 채널들은 영화, 드라마, 어린이, 연예/오락/게임, 스포츠, 뉴스/정보, 생활, 홈쇼핑, 음악, 교육/교양, 종교 장르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은혜정, 박웅진(2005)의 케이블TV 장르분류를 따랐다.

5) 광고시간을 제외한 각 장르별 표집시간은 영화 6.3h, 드라마 3.2h, 어린이 3.2h, 연예/오락/게임 3.7h, 스포츠 5.8h, 뉴스/정보 5.8h, 생활 3.2h, 홈쇼핑 3.2h, 음악 1.0h, 교육/교양 7.4h, 종교 2.0h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폭력의 내러티브는 폭력적 장면이 사용된 목적과 관련하여, 폭력이 처벌되거나 폭력의 부정적 결과를 묘사함으로써 폭력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보여주는 ①교훈적 혹은 교육적 내러티브와 폭력이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혹은 재미, 오락의 한 부분으로 묘사되거나 그 부정적인 결과들이 전혀 묘사되지 않는 ②비교훈적 혹은 비교육적 내러티브의 하위유목들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1) 분석단위

미디어 폭력성은 크게 PAT(perpetrator-action-target)와 프로그램, 두 가지 수준에서 분석되었다. 먼저, PAT는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력행위로서 연결되어있는 하나의 폭력장면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장면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가 바뀔 경우 이는 새로운 폭력적 PAT로 간주된다.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달라지거나 폭력의 도구 등이 바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PAT는 전반적인 폭력의 양을 측정하거나 하나의 폭력장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맥락 요소들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여겨진다(NTVS, 1997a, 1997b; Smith et al. 2002).

한편, 폭력의 내러티브나 의도성 등은 이러한 단순한 하나의 폭력적 PAT만으로 분석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묘사되어지고 있는 폭력이 미리 계획되었는지 혹은 그러한 폭력의 결과들이 궁극적으로 특정한 교훈적 결과들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독립된 하나의 PAT만으로 판단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보다 긴 장면(scene) 혹은 궁극적으로 전체 프로그램(program) 수준에서의 분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NTVS, 1997a, 1997b, 1998).

구체적인 분석은 PAT의 경우, 미디어 폭력성을 주제로 하는 대학원 세미나 수업을 통해 폭력성 분석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실습과정을 거친 10명의 커뮤니케이션 전공 대학원생들이 먼저 분석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PAT라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추출된 폭력PAT들을 바탕으로 2차레에 걸쳐 코딩북과 코딩과정에 대한 교육을 거친 12명의 코더들이 PAT의 유형과 맥락들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수준의 분석에 있어서는 해당 코더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나타난 변인별 주요

(primary) 특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폭력성을 분석하였다.

2) 코더 간 신뢰도

폭력적 PAT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는 본격적인 폭력의 유형과 맥락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주요 코딩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주요 장르별로 임의 표집된 총 7개의 지상파와 케이블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코더 간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다. 6명의 코더들 간 전체 평균 신뢰도지수(Holsti's intercoder reliability coefficient)는 .90으로 통상적인 신뢰도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 변인별로 보다 구체적인 신뢰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폭력의 형태 .92 물리적 폭력 유형 .88, 언어적 폭력 유형 .89 가해자/피해자 유형 .92 폭력의 회화 .99 폭력의 현실성 1.00, 폭력의 의도성 .86, 폭력 내러티브 .71로 산출되었다.

IV. 연구결과

〈표 1〉은 지상파와 케이블TV에서 방영된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의 전반적인 그리고 유형별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표집된 총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8주 동안 약 419시간 그리고 케이블방송의 경우 2주간 약 48시간이었다. 해당 표집시간 동안 발견된 총 폭력적 PAT는 지상파가 2,381건 그리고 케이블이 657건으로 이를 시간당 폭력빈도로 계산했을 때 지상파의 경우 5.7회 그리고 케이블은 13.7회로 나타났다. 즉, 케이블TV의 경우 지상파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당 폭력장면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시간당 폭력PAT의 지속시간에 있어서도 역시 케이블과 지상파가 각각 약 183초 그리고 58초로 나타나 지상파에 비해 케이블TV가 약 3배가 넘는 폭력장면의 지속시간을 보이고 있다. 총 폭력PAT의 지속시간은 케이블과 지상파가 약 2시간 27분과 6시간 43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케이블방송의 경우 단순한 폭력장면의 빈도뿐만 아니라 하나의 폭력장면 역시 지상파방송에 비해 보다 긴 시간동안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폭력의 빈도와 지속시간에 있어서 케이블 프로그램은 지상파 프로그램에 비해 현저히 높

은 폭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청소년 시청가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시청등급제가 적어도 폭력성의 관점에서는 매체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표 1>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의 빈도

	지상파	케이블	평 균
유형별 폭력 PAT 빈도(%)			
물리적 폭력 PAT	59.6	63.9	919
언어적 폭력 PAT	28.9	32.1	449.5
복합적 폭력 PAT	11.5	4.0	150.5
$(\chi^2=33.39 \ p<.001)$			
유형별 시간당 폭력 PAT 빈도			
물리적 폭력 PAT	3.4건	8.8건	6.1건
언어적 폭력 PAT	1.6건	4.4건	3.0건
복합적 폭력 PAT	0.7건	0.5건	0.6건
총 폭력 PAT 빈도	2,381건	657건	1,519건
총 폭력 PAT 지속 시간	6시간 42분 33초	2시간 26분 45초	4시간 34분 48초
총 프로그램 방영 시간	419시간 06분 19초	48시간 10분 31초	
시간 당 폭력 PAT 빈도	5.7건	13.7건	9.7건
시간 당 폭력 PAT 지속 시간	57.6초	182.8초	120.2초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폭력PAT의 빈도를 살펴보면, 지상파와 케이블 공히 물리적 폭력의 빈도가 각각 69.6%와 63.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언어적 폭력 역시 각각 28.9%와 32.1%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 폭력의 시간당 빈도분석을 보면, 물리적 폭력의 경우 지상파는 시간당 3.4건 그리고 케이블이 시간당 8.8건의 폭력PAT가 발견되었으며, 언어적 폭력의 경우 지상파와 케이블이 각각 1.6건과 4.4건의 폭력PAT가 관찰되었다. 유형별 시간당 폭력빈도에 있어서 지상파와 케이블의 차이는 전체적인 매체별 폭력빈도의 차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그리고 언어적 폭력의 경우 공히 케이블이 지상파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2>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 분석(PAT)

	지 상 파					케 이 블				
	전체	7세	12세	15세	계	전체	7세	12세	15세	계
가해자/피해자 인물유형(%)										
사람	94.0	100	92.8	95.8	94.9	78.8	39.7	96.0	98.1	84.0
동물	0.5	0.0	0.0	0.4	0.4	16.1	44.1	0.9	0.3	10.9
의인화된 존재	0.4	0.0	0.0	0.0	0.2	0.0	2.0	0.0	0.0	0.3
초자연적 존재	0.3	0.0	6.9	0.0	0.6	0.0	10.3	0.0	0.0	1.7
	$(\chi^2=289.77, p<.001)$					$(\chi^2=264.60, p<.001)$				
물리적 폭력의 유형(%)										
신체를 이용한 공격	53.3	0.0	40.7	41.2	45.8	62.6	26.4	36.9	52.6	46.4
도구를 이용한 공격	21.2	100	52.8	17.0	21.5	18.2	50.5	22.1	21.6	27.1
신체/도구를 이용한 위협	8.2	0.0	0.0	19.7	13.7	16.2	16.5	30.3	23.7	20.6
복합적 유형	0.0	0.0	0.0	0.4	0.2					
	$(\chi^2=256.52, p<.001)$					$(\chi^2=134.48, p<.001)$				
언어적 폭력의 유형(%)										
혼잣말	35.6	0.0	3.0	19.6	26.4	10.4	8.3	4.5	9.7	8.0
모욕	47.1	100	97.0	67.5	59.2	83.3	50	79.5	80.6	81.4
위협	17.3	0.0	0.0	12.9	14.5	6.3	41.7	15.9	9.7	10.5
	$(\chi^2=62.34, p<.001)$					$(\chi^2=18.25, p<.05)$				
폭력의 회화(%)										
언어적 회화	13.8	14.3	15.1	4.6	9.1	7.5	6.9	7.4	0.0	4.6
신체적 회화	21.4	0.0	37.5	8.4	15.7	31.5	26.5	15.3	12.3	20.9
그래픽/자막을 통한 회화	0.1	0.0	5.9	0.2	0.5	12.3	0.0	0.6	0.0	2.9
	$(\chi^2=371.93, p<.001)$					$(\chi^2=160.78, p<.001)$				

한편, 미디어 폭력이 어떤 맥락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폭력의 장면단위인 PAT 수준에서의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이는 표집된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지상파의 총 2,381개, 케이블의 총 657개의 PAT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다. 우선 폭력관련 인물의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 거의 대부분의 폭력들이 사람들에게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청등급별 특징을 보면, 케이블의 경우 7세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동물 캐릭터에 의한 폭력이 44.1%로 사람에 의한 폭력 3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히 묘사되었으며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폭력

PAT도 10.3%에 달했다. 이는 7세 시청가에 포함된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분석결과로 여겨진다. 비현실적 캐릭터에 의한 폭력보다는 사람과 같은 현실적인 존재에 의한 폭력이 더욱 사실적으로 그려진다는 의미에서 7세 시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청등급에서 표현되는 폭력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폭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신체를 이용한 공격이 지상파의 경우 45.8%, 케이블은 46.4%로 다수로 나타났고 도구를 이용한 공격이 각각 21.5%와 27.1%로 그 뒤를 이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위협의 경우도 지상파와 케이블이 13.7%와 20.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폭력행위에 있어서 도구의 사용은 공격적 성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므로(Gunter, 1985; NTVS, 1997a) 폭력적 행위의 수단으로서의 무기와 같은 도구사용에 대한 묘사가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는 점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청등급별로는 지상파와 케이블 공히 7세와 12세 시청가와 같은 유소년 프로그램들에서 이러한 도구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전반적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우려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언어적 폭력의 주요 유형별 분석에서는 욕설, 비속어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욕의 경우가 지상파 59.2%, 케이블 81.4%로 가장 빈번히 묘사되었다. 다음으로 지상파의 경우 화풀이와 같은 혼잣말이 10.4% 그리고 케이블의 경우는 공격적 언어를 이용한 위협이 10.5%로 그 뒤를 이었다. 등급별 분석에서는 지상파의 경우 7세, 12세 시청가에서 모욕에 해당하는 언어적 폭력이 두드러졌으며, 케이블은 시청등급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폭력의 회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분석PAT 중 지상파는 약 25%, 케이블은 약 28% 정도에서 폭력의 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의 회화는 묘사되어지는 폭력행위의 파괴력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폭력에 대한 사소화(trivialization)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맥락적 요소라 할 수 있다(강남준, 김지환, 1999; Potter & Warren, 1998). 회화된 폭력 장면 중 대부분은 신체를 이용한 회화로 표현되고 있으며(지상파 15.7%, 케이블 20.9%) 언어적 회화가 그 뒤를 이었다. 그래픽이나 자막을 통한 회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청등급별로는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 전체 시청가와 7세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회화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유소년층 수용자에게 폭력에 대한 둔감화와 사소화를 야기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적 프로그램 수준의 맥락

	지 상 파					케 이 블				
	전체	7세	12세	15세	계	전체	7세	12세	15세	계
폭력의 현실성(%)										
실제현실/재구성	64.9	100	10.0	7.5	40.0	60.0	0.0	50.0	32.1	41.5
개연적 허구	34.5	0.0	90.0	88.7	58.1	30.0	0.0	41.7	46.4	36.9
비현실적 폭력	0.7	0.0	0.0	3.8	1.9	10.0	100	8.3	21.4	21.5
	$(\chi^2=108.96 \ p<.001)$					$(\chi^2=33.84 \ p<.01)$				
폭력의 의도성(%)										
의도된 폭력	27.7	0.0	60.0	16.0	24.2	60.0	80.0	58.3	17.9	43.1
의도되지 않은 폭력	68.2	100	30.0	70.8	67.9	35.0	20.0	41.7	60.7	46.2
불분명	4.1	0.0	10.0	13.2	7.9	5.0	0.0	0.0	21.4	10.8
	$(\chi^2=40.78 \ p<.001)$					$(\chi^2=16.64 \ p<.05)$				
폭력 내러티브(%)										
교훈적/교육적	29.1	100	30.0	0.9	18.1	15.0	0.0	0.0	3.6	6.2
비교훈적/비교육적	59.5	0.0	60.0	77.4	66.4	75.0	100	100	85.7	86.2
불분명	11.5	0.0	10.0	21.7	15.5	10.0	0.0	0.0	10.7	7.7
	$(\chi^2=100.61 \ p<.001)$					$(\chi^2=7.08 \ n.s.)$				

프로그램수준에서의 폭력의 주요 맥락분석결과는 <표 3>에서 보여지고 있다. 분석된 총 프로그램수는 지상파가 265편, 케이블이 65편으로 나타났다. 먼저, 폭력의 현실성에 있어서는 지상파의 경우 실제 발생한 폭력이나 그의 재현에 해당하는 PAT가 전체의 40.0% 그리고 개연성 있는 허구적 폭력의 경우 58.1%로 절대 다수의 폭력이 매우 현실성 있게 그려진 것으로 관찰된 반면, 비현실적 폭력의 경우 전체의 1.9%에 그쳤다. 케이블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현실 및 재구성이 41.5%, 개연적 허구가 36.9%로 역시 다수의 폭력장면이 현실성 있는 폭력으로 그려졌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 폭력도 21.5%에 달해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비현실적 폭력의 묘사 빈도를 보였다. 보다 사실적인 맥락에서 표현된 폭력의 경우 수용자의 공격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비현실적 폭력이 야기시킬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한 둔감화 현상을 고려해 볼 때(한균태 외, 2007; Atkin, 1983; Geen, 1975),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은 그 양적이 차이와 더불어

어 현실성이라는 맥락적 차원에서도 청소년 수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차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청등급별 분석을 보면 케이블의 경우 표집된 7세 시청가에 속한 5편 모두가 비현실적 폭력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비현실적 배경과 캐릭터에 의한 폭력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지상파의 경우 주 시청시간대 동안 7세 시청가의 프로그램이 한 편 밖에 표집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타당한 평가는 어려워 보인다.

폭력의 의도성과 관련하여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 의도되지 않은 폭력에 대한 묘사가 전체 프로그램의 67.9%와 46.2%로 다수를 이루었으나 케이블 프로그램에서의 의도적인 폭력 묘사의 비율이 43.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7세, 12세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으며 지상파의 경우도 7세 시청가를 제외하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도된 폭력의 경우 그렇지 않은 폭력에 비해 수용자로 하여금 보다 심각한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는 연구결과들(Mustonen & Pulkkinen, 1997; NTVS, 1997a, 1997b)의 관점에서 보면 케이블 프로그램과 특히, 청소년들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등급에서의 의도적인 폭력묘사는 상당히 우려되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폭력을 단순한 재미나 오락의 한 부분으로 묘사하거나 폭력에 대한 처벌 없이 폭력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비교훈적 혹은 비교육적 폭력 내러티브가 지상파(66.4%)와 케이블(86.2%) 프로그램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의 시청등급별 비중도 상당히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폭력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묘사나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즉, 교훈적 혹은 교육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상파의 경우 전체의 18.1%, 케이블의 경우 6.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들은 동일한 폭력행위일지라도 비교훈적 내러티브의 맥락에서 묘사되는 폭력행위에 대해 수용자의 모방욕구가 더욱 쉽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Bandura, 1986; Potter & Warren, 1996). 전반적으로 케이블방송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급증한 케이블방송의 보급률과 시청률을 고려해보면 아직 자아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유년이나 청소년기의 수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미디어 폭력성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폭력의 맥락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시청등급에 의존한 시청지도에 있어서 단순한 폭력의 양적인 측면과 함께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폭력성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해당 매체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성의 양태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자했다. 특히, 단순한 폭력의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이러한 폭력이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맥락적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묘사되고 있는 폭력의 실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현재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등급제가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적용의 매체 간 차이는 어떠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분석수준을 폭력적 PAT와 프로그램이라는 두 단계로 설정함으로써, 폭력의 묘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이 제시되는 심층적인 배경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첫째, PAT 수준의 분석에서 시간당 폭력빈도가 케이블이 지상파보다 2배 이상인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의 지속시간에 있어서도 케이블은 지상파에 비해 3배 이상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력의 지속시간이 길다는 것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묘사시간이 긴 것을 의미하므로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하게 그리고 폭력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양이나 시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체에 따라 같은 등급에 허용되는 폭력의 정도가 일관되지 않음을 결과적으로 의미한다 하겠다.

둘째, 폭력의 유형에 있어서는 지상파와 케이블에서 공히 물리적인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신체를 이용한 공격이 대부분이었으며, 도구를 이용한 폭력도 적지 않았다. 특히, 7세와 12세 시청가와 같이 오히려 낮은 연령대의 유소년 프로그램들에서 도구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더 많이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언어적 폭력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언어적 폭력이 초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해는 장기간에 걸쳐 결국 물리적인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빈번하게 묘사되는 언어적 폭력의 유형은 욕설, 비속어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였고, 프로그램의 등급과

관계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셋째, 폭력관련 인물의 유형에서는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에서 대부분 사람이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묘사되고 있으나, 등급별 분석에서 7세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인해 동물 캐릭터나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폭력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경우 폭력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초자연적 존재의 경우 폭력에 의한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는 다거나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어린이 수용자들에게 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넷째, 폭력의 회화분석결과를 보면 지상파와 케이블에서 발견된 전체 폭력PAT의 25%와 28%가 각각 회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적지 않은 회화비중은 회화가 폭력에 대한 사소화를 초래하며 나아가 이에 대한 둔감화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결과이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블 모두 전체 시청가와 7세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회화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유소년 수용자들의 시청지도에 있어 매우 유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아직 폭력에 대해 제대로된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유소년층 수용자들에게 폭력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상파나 케이블TV에서 대부분의 폭력이 현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케이블이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비현실적 묘사를 보이고 있다. 역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폭력의 의도성과 관련하여서는 의도적인 폭력묘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수용자의 공포감 유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폭력의 내러티브 분석에서는 비교훈적 혹은 비교육적 내러티브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교훈적 내러티브는 폭력의 부정적인 결과나 영향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수용자들의 모방욕구를 더욱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즉, 매체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 등급에서도 상이한 수준의 폭력들이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력의 맥락적 요소들

이 다양한 등급의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쉽게 그리고 균등한 수준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등급분류기준의 마련과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의 유효한 적용 가능성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또한 강력히 요청된다. 특히, 케이블 TV의 폭력성은 지상파에 비해 현격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마련과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처럼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비교연구는 매체별 특성에 따른 보다 적절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송사의 자정노력과 등급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청소년 교육의 병행과 같은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분석대상을 주시청시간대로 한정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주시청시간대의 표집으로 인해 7세와 12세 시청가 프로그램에 대한 표본 수가 현저히 적었으며, 케이블의 경우도 채널별 주시청시간대의 차이를 고려해 보다 다양한 시간대에 대한 프로그램표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 폭력의 맥락적 요인들이 시청자의 폭력성 평가나 공격적 성향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분석결과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성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관련분야에서의 기초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 기여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청등급제에 대한 제도적 수정과 보완을 위한 논의 및 후속 연구들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남준·김지환(1999). 폭력물 시청과 청소년 폭력성 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으로서의 자기 효능감 역할. *한국방송학보*, 제13권, pp. 47-86.
- 곽진희(2001). TV폭력의 맥락차원과 시청자의 폭력성의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5권 제2호, pp. 7-41.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물 모니터링 중간결과 발표. 2007년 10월 11일 보도자료
- 김인형(2006).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중격투기 프로그램 시청 심취도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5권 제5호, pp. 91-101.
- 김현수·김현실(2000). 청소년의 폭력매체 영향평가 측정도구 개발. *신경정신의학*, 제39권 제1호, pp. 34-45.
- 나은영(1995). 미디어 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 *한국방송학보*, 제6권, pp. 41-77.
- 민영·이정교·김태용(2007). 주시청시간대 지상과 텔레비전의 폭력성 연구: 폭력의 양과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5호, pp. 84-126.
- 박남기(2007). 美 FCC의 '폭력' 보고서, 논란. *해외방송정보*, 6월호.
- 방송위원회(1994, 1996). *방송문화지표연구 종합보고서*.
- 방송위원회(2007a). 2006년 *방송심의사례집*.
- 방송위원회(2007b). 2006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 안계춘·박한철(1998). TV폭력의 실태와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과학*, 제46권, pp. 79-110
- 우형진·김성벽(2006). 폭력영상물 둔감화(desensitization)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0권 제5호, pp. 87-219.
- 윤진(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이문웅(1991). 폭력행위의 문화 인류학적 배경,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범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지명희(1998).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 논문.

- 최이정(2001). 미디어 폭력의 맥락적 요인이 어린이의 도덕추론에 미치는 영향. *한국 언론학보*, 제46권 제1호, pp. 483-516.
- 하승태·곽은경·정기완(2007). 국내 지상파 TV 드라마에서 나타난 폭력성 : 폭력의 양태와 맥락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2호, pp. 77-104.
- 한균태·하승태·서영남·조의현(2007). 지상파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1호, pp. 311-351.
- Atkin, C. (1983). Effects of Realistic TV Violence vs. Fictional Violence on Aggression. *Journalism Quarterly*, Vol. 60, pp. 615-421.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rkowitz, L., & Alioto, J. T. (1973). The Meaning of an Observed Event as a Determinant of Its Aggressive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8, pp. 206-217.
- Bushman, B. J., & Anderson, C. A. (2001). Media Violence and the American Public: Scientific Fact Versus Media Misinforma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pp. 477-489.
- Comstock, G., & Paik, H.(1991). *Television and the American child*. New York, NY: Academic Press.
- Geen, R. G. (1981).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actions to Observed Violence: Effects of Prior Exposure to Aggressive Stimuli.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0, pp. 868-875.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no. 11).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30 No. 3, pp. 10-29.
- Gunter, B. (1985). *Dimensions of Television Violence*. 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 Gunter, B. (1994). The Question of Media Violence, in J. Bryant & D. Zillmann(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pp. 163-164.

- Lefkowitz, M. M., Eron, L. D., Walder, L. O., & Huesmann, L. O. (1972). Television Violence and child Aggression: A Followup Study. in G. A. Comstock & E. A. Rubinstein(eds.),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Vol. 3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Hoffner, C., & Cantor, J. (1985).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Reasons to a Television Character's Appearance and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1 No. 6, pp. 1065-1074.
- Huesmann, L. R., & Moise, J. (1996). Media Violence: A Demonstrated Public Health Threat to Children. *Harvard Mental Health Letter* 12, pp. 5-7
- Krcmar, M., & Cooke, M. C. (2001). Children's Moral Reasoning and Their Perceptions of Television Viol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1 No. 2, pp. 300-316
- Mustonen, A. & L. Pulkkinen (1997). Television Violence: A Development of Coding Schem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47, pp. 168-189.
-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1997a, 1997b, 1998).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Vol. 1, 2, & 3. Thousands Oaks, CA: Sage.
- Perry, D. G., & Perry, L. C. (1976). Identification with Film Characters, Covert Aggressive Verbalization and Reactions to Film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10, pp. 399-409.
- Potter, W. J., & Ware, W. (1987). An Analysis of the Contexts of Antisocial Acts on Prime-time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4 No. 6, pp. 664-686.
- Potter, W. J., & Warren, R. (1996). Considering Policies to Protect Children from TV Viol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6 No. 4, pp. 116-138.
- Potter, W. J., & Warren, R. (1998). Humor as Camouflage of Televised Viol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8 No. 2, pp. 40-58.
- Potter, W. J., Vaughan, M. W., Warren, R., Howley, K., Land, A. & Hagemeyer, J. C. (1995). How real is the portrayal of aggression in television entertainment

- programm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39, pp. 496-516.
- Severin, W. J. & Tankard, J. W. (2001).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thods, and Uses in Mass Media*. NY: Longman.
- Smith, S. L., Nathanson, A. I., & Wilson, B. J. (2002). Prime-time television: Assessing violence during the most popular viewing hour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2 No. 2, pp. 84-111.
- Williams, T., Zabrack, M. & Joy, L. (1982). The Portrayal of Aggression on North American Televi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2 No. 5, pp. 360-380.
- Zillmann, D., & Bryant, J. (1991). Responding to Comedy: The Sense and Nonsense in Humor. In J. Bryant & D. Zillmann (Eds.), *Responding to the Screen* (pp. 261-27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Violence in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Programs aimed at Adolescents

Ha, Sung-Tae* · Kim, Chang-Sook** · Choi, Su-Jin*** · Yoo, Sung-Hoon****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violence on network and cable television programs and rated all on a scale of 7, 12, & 15. As contextual variables, which are assumed to influence viewers' evaluations of media violence, perpetrator/target types, types of physical and verbal violence, and the portrayal of violence as humor or comedy were analyzed at the level of PAT. The reality, intention, and narrative of the violence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program concerned. In general, more violence was found to be present on cable TV than on networks, and the distribution of contextual variables was also different between these two types of media. Specific analysis concerning ratings showed no monotonic increase or decrease of the amount of violence and the contexts across programs of different ratings. Rather, it indicated an even distribution of violence.

Key Words : adolescents, ratings, television violence, context of violence

투고일 : 12월 16일, 심사일 : 2월 4일, 심사완료일 : 2월 20일

* Post-doc Researcher,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 Lecturer,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 Master's Student,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 Master's Student, Schoo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